

大學敎育과 道義



長老會神學大學長 朴 昶 環

I

大學이라고 하면 眞理探究의 最高機關으로서 각 分野의 眞理를 研究·學習·發展시키는 일에 전념하며 노력하는 곳이어야 한다. 大學에서는 오늘날까지 人類가 축적하고 傳承해 주는 지식과 진리를 배우고 정리하고 통합하여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는 創造的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知識과 眞理를 캐내고 발견하여 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道場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大學은 眞理探究에 최대의 自由를 가지고 아무런 방해나 拘碍를 받는 일이 없이 學徒들이 全力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大學敎育은 수많은 沮害要素들 때문에 그 發展이 遲遲不振하였고 先進國의 대학들에 비해서 아직 많은 분야에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遑遠한 感을 가지게 되는 실정이다. 學問이 하루 이틀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傳統이 있고 뿌리가 있고 基礎가 있어서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인데, 한국에 있어서의 學問의 年輪이 아직 짧고 어리기 때문에 先進國의 대학들에 비해 많이 落後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西洋 各國과 隣邦인 日本까지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學問 研究

에 熱을 올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鎖國政策을 고수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고, 뒤늦게 開國을 했지만 日本人들의 魔手에 붙들려 36년이나 그들의 植民地 百姓으로서 學問探究 隊列에 걸 수조차 없었다. 8·15 해방과 함께 自由를 얻었지만 정신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6·25 동란이 일어나 그나마도 모든 學校施設들이 파괴되고 완전히 無에서부터 새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大學들은 결국 1950년대 이후에 폐허에서 출발하여 불과 30여 년의 歷史를 가진 매우 日淺한 敎育機關들이다. 그러나 官民이 일치하여 學問暢達을 위한 非常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한국은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였고 모두가 驚異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大學들을 注視하게 될 정도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의 수로 보나 대학에 몰려 오는 학생들의 수로 보나 世界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施設에 있어서도 先進國들의 대학 水準에는 못 미치더라도 거의 그들을 뒤따를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深刻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의 대학들이 學問에 있어서 많은 部門이 先進國의 대학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學問이라는 것의 性格上, 즉 긴 傳統과 기초를

要求하는 것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은 그 격차를 놀라운 속도로 좁혀가고 있다는 사실로써 자慰하면서, 조만간 우리가 先進國 대학들의 學問水準과 대등해지거나 앞지르도록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覺悟를 해야 할 것이다.

II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量的으로 불어난 학생의 수와 그들을 바로 가르칠 만한 敎員의 수의 不足과 施設의 不足으로 인해서 敎育의 內實을 기할 수 없다는 일이다. 과도한 敎育熱과 대학을 나와야만 就職이 보다 용이하다는 社會的 狀況 때문에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으로 몰리는 바람에 敎授要員을 확보할 겨를도 없이 擴張된 대학의 質은 자연히 標準을 下廻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한국의 대학들이 학생들은 많지만, 그들이 진정 眞理探究의 旗手들로서 모든 分野에서 창의적인 研究를 하여 國家, 社會, 또는 人類에게 貢獻을 한다는 使命感을 가진 崇高한 학생들을 양성한다기보다는 工場에서 어떤 物品을 대량으로 生産하듯이 粗製品을 大量으로 마구 社會로 쏟아 놓는 感마저 들기 때문에 大學人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대학을 경영하는 측에서는 대학을 하나의 企業처럼 생각하는 傾向마저 없지 않았던 것도 솔직한 우리의 實情이었으며, 많은 대학들이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을 받아서 많이 졸업을 시키면 國家와 社會에 더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학교 만들기 競爭을 하는 것 같은 감을 주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大學敎育의 倫理가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敎育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敎員들이 정말 良心의으로 眞理探究에 熱과 誠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선 물어야 하겠다. 先進國 학문의 永準과 비교해서 얼마나 落後되어 있는가를 바로 알고, 그 隔差를 줄이고, 메우고, 또는 능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줄기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最高의 水準에 도달하여 尖端을 걷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現實에 만족

하거나 自己가 아는 것이 다인 양 踏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결국 말만 대학이지 일정한 高等知識을 傳授하는 것으로 使命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本分을 게을리하거나 責任을 깨닫지 못하는 잘못이 있는 것 같고, 동시에 經營하는 사람들 측에서도 참된 倫理를 못 가지고 그야말로 營業的으로 운영하는 實情을 보면서, 계단을 금할 수 없다.

包括的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大學敎育이 敎育倫理的으로 따질 때 여러 가지로 未洽함을 느끼면서 반성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

近者에 와서는 세계적인 경향이라고는 하지만 敎授와 學生의 관계가 점점 機械的이고 業務的이 되어서 人格的인 감화를 학생들에게 준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선 학생과 敎授의 數的 比例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敎授가 학생 하나 하나에게 관심을 두고 個別的으로 指導를 하거나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産業社會, 工業社會로 변해가면서 非人間化의 물결에 휩쓸린 인간들이 대학에 모여서도 그것을 克服하지 못하고 단지 學問을 사고 파는 식의 장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人格敎育이 점점 사라져가는 대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敎授를 不信하고 尊敬하지 않고, 단지 그들로부터 知識을 돈 내고 사려는 식이어서, 마치 커피 자동판매기에다 동전을 집어넣고 커피를 사 마시는 버릇처럼 완전히 기계화되는 추세에 있다. 敎權이 땅에 떨어지고 弟子의 道義가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國家內에서 最高의 知識人들이 모여 있는 大學이 이렇게 점점 道義가 흐려지고 人格敎育이 좀먹어 간다면 國家와 民族의 將來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이 많고, 대학이 많이 생기고 대학마다 학생들이 짹 짹 공부하니 참 좋고 希望이 있다고 쉽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의 대학이 이대로 나간다면 한국의 將來는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다는 느낌을 필자는 가지면서 더 늦기 전에 무슨 措置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점점 실력 없는 學生들이 量産되어

나오니 쓸모가 별로 없는 高級 物産들을 社會에 쏟아 붓는 것이 되고, 게다가 人格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非人間化된 기계와 같은 人間들이 社會에 나가서 지도자들이 될 터이니, 機械人間(robot)들이 조종하는 삭막한 非情의 社會가 될 것이고, 一步 더 나아가 道義를 떠난 人間들이 社會를 통솔할 때, 결국 社會는 얼마나 混亂해지고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 되겠는가 말이다.

大韓民國이 爲政者들의 현명한 政治와 온 國民의 슬기로운 협력과 노력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開發途上의 國家 중에서는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GNP가 날로 높아가고 建設面에서 모두가 놀랄 정도로 눈부신 成長을 보이고 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대학이 100여 개가 되는 등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정말 얼마 안 가서 어느 나라나, 社會도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훌륭한 國家와 社會가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염려스럽기 짝이 없다는 느낌을 가진다. 탑을 쌓아 하늘에 닿을 듯하다고 기뻐할 수 있지만,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 民族이 지금 신이 나서 쌓아 올리고 있는 建設의 塔이 과연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알찬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자. 幼稚園 아이들이 나무토막을 가지고 집짓기를 하는데, 얼마를 쌓아가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이 나라를 건설하느라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 집이 만일 基礎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모르탈(사모리)을 가지고 꼭꼭 붙여 놓지 않는다면 몇 겹 못 올라가서 무너지고 말 것이다. 筆者는 教育에 있어서나 産業에 있어서나 어떤 建設에서나 道義를 모르탈로 하여 쌓기 전에는 마칩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 健全한 倫理가 결여된 단체나 社會가 결국 붕괴된다는 것은 歷史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거대한 로마帝國이 무너진 主要한 原因 중의 하나가 道德的 腐敗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오늘의 우리 社會의 問題는 올바른 倫理가 없이 産業이 발전되고 富가 蓄積되고 있다는 데 있

는 것이다. 무슨 方法을 가지고라도 돈을 벌고 보자는 식의 思考나 배 부르면 되고 나 잘 살면 그만이라는 利己的 思考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팽 차 있으며,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秩序를 지키고 法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實情이 아닌가 말이다. 이렇게 道義가 땅에 떨어진 國家와 社會가 어떻게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한 國民道義 低下의 現象을 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

III

國民道義를 확립하는 莫重한 課業은 무엇보다도 教育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고, 우선 幼稚園을 비롯하여 國民學校 教育에서부터 철저한 道義教育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國民學校에 道義教育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實效를 거두지 못한 것은 敎師들의 實踐이 없는 말만의 教育이었다는 데 그 原因이 있었다고 본다. 결국 高等教育을 받은 敎師들이 올바른 道義教育을 받고 올바른 師表가 될 때 學生들이 따라서 올바른 國民으로 成長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의 指導者들이 社會 구성 구성에서 올바른 倫理觀과 價値觀을 가지고 일하는 길밖에 없는데, 오늘의 大學教育이 어느 정도의 知識人을 생산하고 있을지언정 참된 道義를 體得한 참 人間을 교육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오늘의 한국의 大學教育이 확실한 道義教育을 실시하여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할 줄 알고, 정직하고, 信義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땀 흘려 쌓고 있는 공든 塔이 하루아침에 무너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여기서 大學教育은 學問研究에 일층 더 박차를 가하는 한편, 道義教育에 획기적인 斷案을 내려 참된 人格을 갖춘 人間, 그리고 참된 指導者들을 배출하는 일에 全力을 기울여야 할 줄 안다. *